

광주·전남 공연장 ‘화재 안전’ 공백 커진다

1000석 이상만 방화막 설치 의무...95%는 규제 밖 중소규모 증가 속 사각지대...“인명보호 대책 시급”

1000석 이상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규모의 공연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개정된 공연법 하위법령 시행으로 좌석 수 1000석 이상 종합공연장에는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화막은 무대에서 발생한 화염과 연기가 객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관객

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최대 6개월 공연장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 공연장 구조를 고려할 때 제도 적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올해 4월 기준 광주 지역 공연장은 실내 41곳, 야외 10곳 등 총 51개소다. 이중 방화막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1000석 이상 공연장은 중외공원 야외공연장(2500석),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2000석),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1517석) 등 3곳에 불과하다.

전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57개 공연장 가운데 방화막 설치 대상은 여수 BIG-O 해상무대(3000석),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1207석), 여수 예올마루 대극장(1021석) 등 3곳 뿐이다.

결국 광주·전남 전체 공연장의 약 95%를 차지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연 환경과 제도 간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화시설 접근성 확대 정책에 따라 300~10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300석 미만 소공연장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은 이

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소공연장 역시 화재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공연장은 조명·음향·특수효과 장비 등 전기 및 열 발생 요인이 많고, 객석은 밀집 구조로 설계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당수 공연장은 방화막은 물론 추가 안전설비 도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 공연업계 관계자는 “소공연장은 지역 공연업체 관계자는 “소공연장은 운영 자체도 빠듯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비용이 드는 방화막 설치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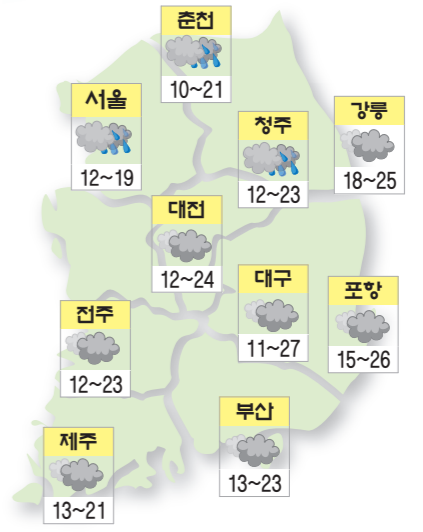
하기관의 정기 안전검사 결과, 전국 공연장의 약 88%가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 500여 개 공연장 가운데 1000석 이상 시설은 약 70곳에 그쳐, 현행 기준으로는 대부분 공연장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전문가들은 공연장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대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는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장은 어두운 환경과 밀집된 좌석 구조로 인해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사고는 취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방화막과 같은 물리적 차단 장치는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5:36 달맞이 ---:--
☁️ 맑음 19:23 달맞이 09:15



광주	11~23
목포	12~21
여수	11~22
순천	10~22
구례	9~24
광주	11~23
매남	10~24
신도	11~23
죽산도	13~18
진남	10~23
고흥	10~23
진도	12~29

목포	밀물(고)	05:21 / 17:09
	썰물(저)	10:39 / 22:24
여수	밀물(고)	11:49 / ---:--
	썰물(저)	06:08 / 17:48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 피해 속출

전남서 14건·3800만원 집계...가짜 공문 제시도

전남 지역에서 소방관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까 지 소방관 사칭 사기 피해는 총 14건으로, 피해액은 38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인들은 주유소 등을 찾아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속이라면서 “법령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해 특정 업체에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4월 장성·영광·곡양에서 소방용품 업체에 계좌로 이체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사칭범이 소개한 특정 업체에 350만~15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송금 이후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사기를 인지했다.

사칭범들은 소방공무원 명함과 전남소

방본부 명의를 가짜 공문까지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실제 판매되는 리튬이온 소화기의 제품성능서를 제시하거나 가짜 제품 구매처 명함을 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도 사용했다.

사칭범들은 확인 전화를 걸자 피해자들에게 “소화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에 전남소방본부는 도내 22개 소방서와 협력해 상인회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제 피해 사례와 대처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나의 선거이야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광주 남구가족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나의 선거이야기 시화전에서 다문화 유권자들이 선거 포스터 등을 그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국민 67.3%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5·18기념재단,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6명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18기념재단이 6일 발표한 국민 5·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7.4%에 달했다. ‘대체로 필요하다’는 19.8%, ‘보통이다’는 16.4%로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9.9%,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는 6.4% 등 부정적인 입장은 극히 적었다.

헌법 전문 수록이 가지를 가장 긍정적인 변화(1순위)로는 ‘5·18에 대한 불필

요한 역사 논쟁과 갈등 종식될 것’이라는 답변이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히 뿌리내릴 것(24.0%)’,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높아질 것(15.5%)’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국가 폭력의 핵심 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와 규명을 바라는 요구도 강했다. ‘진실규명 우선과제(1순위) 중 ‘발포 책임 규명’에 대한 응답이 56.6%로 최다였다. 이어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16.1%, ‘진실은폐 과정 규명’ 14.3%, ‘인권 유린 실태조사’ 7.1% 순이었다.

중점 추진 과제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일상의 기념 문화 정착’이 30.9%를 차지했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21.9%, ‘추가 진상조사 기구 구성 및 미해결 과제 처리’ 19.8% 등으로 조사됐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의 올바른 역사 교육·교재 보급’ 35.5%,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5·18 팩트체크 시스템 상설 운영’ 29.5%, ‘역사 왜곡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20.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에듀테크가 1일부터 3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장애인증 위조해 야구장 주차

만년필 ○·위조된 장애인 주차증으로 KIA야구장 주차장을 이용한 50대 남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서지혜 재판장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48분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구역에 본인 차량을 세운 혐의로 기소.

A씨는 처남 명의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 번호를 유성펜으로 적어 넣었다고.

이후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유리에 부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차표지 사용이 적발되지 않을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남구, 승촌 파크골프장 재개장

잔디 개선...안전 그물망 증설

광주 남구가 시민의 여가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시설 개선에 추진했던 승촌 파크골프장을 재개장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해당 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3월 9일부터 승촌 파크골프장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은 파크골프장의 핵심 요소인 잔디 상태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남구는 고사·훼손된 잔디 구간에서 보식 작업을 진행했고, 생육 촉진을 위한 친환경

비료를 살포했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안전 그물망을 증설했다. 노후시설 보수와 경기 중 시야 확보를 위한 수목 가지치기와 필드 평탄화를 위한 굵은 모래를 까는 작업도 마무리했다. 휴게시설도 개선했다. 추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파크골프장 내에 고정식과 이동식 의자 50개를 설치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무등산 숲 그늘서 사색하고 힐링해요”

초여름 국립공원 무등산에서 일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나만의 생각을 켜는 ‘생각의 축제’가 열린다.

광주 동구는 6월 13~14일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원에서 제4회 무등산 인문축제 ‘무등생각’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무등산 인문축제는 ‘무등(無等)’이 지닌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을 짓고 나누는 참여형 인문축제로 확장됐다.

이번 축제는 ‘생각을 끄고(Switch Off), 생각을 켜다(Switch On)’란 주제로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불

필요한 소음을 내려놓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인문적 경험을 제안한다.

총 4개 공간에서 3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생각을 끄는 숲(OFF)’과 ‘생각을 켜는 광장(ON)’에서 나눠 진행돼 방목에게 색다른 사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13일 오전 10시 무등산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학운초등학교 학생 85명이 참여하는 합창 ‘무등생각의 동구라미’를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간별 콘셉트에 따라 다채롭게 마련됐다.

‘생각을 켜는 광장’에서는 인문토크, 북콘서트, 청소년 시 백일장, 무성영화 상영회, 인문 팝업스토어 등이 운영되며, 시민들이 타인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13일 인문토크에는 방송인 김재동이 참석해 ‘무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며 유쾌한 입담을 뽐낼 예정이다.

편백숲 일대에 조성된 ‘생각을 끄는 숲’에서는 몸짓 퍼포먼스, 디지털 디톡스, 침묵독서, LP청음회 등 휴식과 몰입 중심의

광주 동구, 6월 13~14일 중심사 일원서 ‘인문축제’ 북콘서트·LP청음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숲의 소리와 공기에 집중하는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생각의 통로’에서는 인문도시 네트워크 전시와 버스킹 공연이, ‘생각의 확장’에서는 의재 사생대회, 인문사유정원, ‘소년이 온다’ 투어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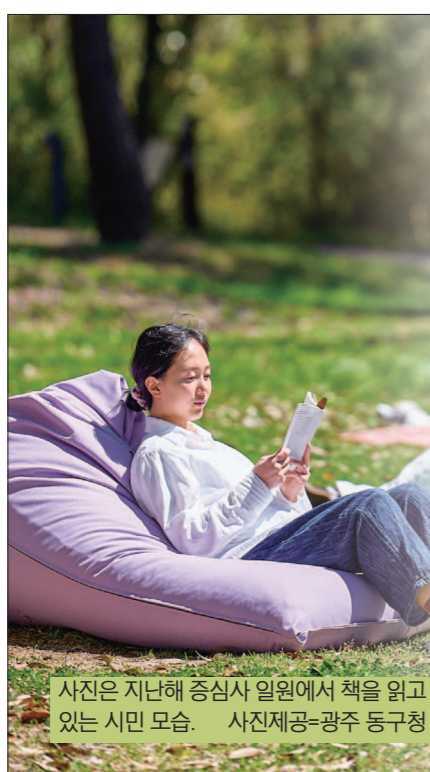
특히 동구 인문아카데미와 연계한 인문 북토크 ‘나를 생각하는 시간’에는 2026 제17회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한 김재원 소설가가 진행자로 나서 광주 출신 정용준 소설가와 함께 ‘나를 돌아보

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의재로 일대 사립미술관과 중심사, 5·18 관련 공간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축제는 무등산 일대를 아우르는 인문 문화 행사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관계자는 “‘무등생각’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사유의 장’이다”며 “초여름 무등산의 자연 속에서 생각의 즐거움과 삶의 여백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사진은 지난해 중심사 일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시민 모습. 사진제공-광주 동구청